

재일코리안 민족학교의 성장요인과 학교문화로서 교가 고찰*

임 영 언**

김 태 영***

(e-mail: yimye@hanmail.net · taeyoung@gwnu.ac.kr)

< 목 차 >

- | | |
|---------------------|--------------------------------|
| 1. 서론 | 4. 한국학교와 조선학교의 학교문화로서 교가의 내용분석 |
| 2.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4.1 가와사키(川崎) 사쿠라모토(桜本) 소학교의 교가 |
| 3. 민족학교의 태동 성장과정 | 4.2 사이다마(埼玉) 조선학교 교가 |
| 3.1 민족학교 성장과정 | 4.3 도쿄(東京) 한국학교 교가 |
| 3.2 교가의 등장배경과 역할 | 5. 결론 및 시사점 |

키워드 : 学校文化(School Culture)、校歌(School Song)、民族学校(Ethnic School)、アイデンティティ(Identity)、在日コリアン(Japanese-Korean)

1. 서론

일본에 존재하는 민족학교, 특히 조선학교에서 교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교가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때부터 일본 각지의 조선학교에서 교가의 발굴과 창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왜 글로벌시대가 시작되는 1980년대 이후 시점에서 일본에 존재한 민족학교, 특히 조선학교에서 교가의 창작이 대대적으로 이루어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5086).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제1저자).

***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본학과 교수(교신저자).

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당시 재일코리안의 사회적 상황에서 교가의 창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재일코리안 2-3세의 일본정주의 기정사실화, 조선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 재일코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의 확보 등 다양한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 중 1980년대 이후 무엇보다도 조선학교 학생수의 급감으로 인한 위기의식, 학부모와 학생들 간의 연대감 형성, 조선학교와 동포사회의 일체감 형성의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1980년대 당시 재일코리안 사회는 정주화와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교육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코리안의 세대교체에 따른 정주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조선학교에서는 일본어 습득의 어려움이 정주화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조선학교 학생들이 일본학교로 대거 전학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1967년 당시 조선학교 재적학생수가 35,589명이었던 것이 1981년도에는 22,940명으로 급감했던 것만 보아도 당시 조선학교의 실정을 짐작할 수 있다.¹⁾

이 연구는 이러한 재일코리안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조선학교의 성장과정에서 학교문화로서 ‘교가’의 출현과정과 한국학교와 조선학교에서 창작된 교가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재일코리안 민족학교²⁾의 연구는 주로 민족교육의 역사, 민족운동사, 학교제도적인 측면의 비교연구 등이 중점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민족학교에 관련된 기존연구들이 글로벌시대 민족학교의 기초자료 수집과 한국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총론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각론적인 차원에서 민족교육의 내용을 상세히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그 이유는 총련이 지원하는 조선학교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조선학교의 교육현장을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자료수집 또한 입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내 조선학교 출신 연구자들에 의한 조선학교 관련 참신한 연구들이 드물게나마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자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1) 外村大(2004)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考察—形成・構造・変容』 綠蔭書房、p.463

2) 본 연구에서는 민족학교의 개념에 대하여 소수민족이나 외국인이주자의 입장에서 제기된 용어로 재일코리안 아동 혹은 한반도에 민족적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민족적 루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 교육을 일컫는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국학교와 조선학교를 총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세한 분류는 민단체는 한국학교, 총련계는 조선학교로 각각 분류하여 사용하였음.

그러면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일코리안들에게 있어서 민족학교의 교가는 어떤 내용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현재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는 대략 한국학교 4개교, 조선학교 98개교 등 102개교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조선학교의 학생수 급감에 따라 학교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민족학교의 성장과 소멸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더 나아가 민족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교가가 민족학교 학생들에게 재일코리안으로서의 정체성, 재일2세대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을 대체하는 민족학교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선학교에서 교가가 창작되어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에 의해 불리워지고 계승되는 일련의 과정은 일본에서 지역동포사회의 거점으로서 조선학교가 존재했으며 조선학교 학생들이 경험하는 공동체함과 공동체적 감정이 조선학교 출신이라는 일체감을 통해 재일코리안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공유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결국 조선학교 교가는 교육현장의 교원과 그것을 실천하는 학생들, 그리고 지역동포들 간의 공동체적 일체감에 의해 확대 발전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조선학교의 교가는 학교 교원으로부터의 민족의식 고취라는 목표와 학교에서 배양된 학생들 간의 공동체적 감정을 기반으로 재일코리안의 민족정체성을 정립시키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민족학교에서 교가가 탄생하게 된 일련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에 주목하고 특히 1980년대 이후 민족학교에서 한국학교와 조선학교의 성장의 차이, 민족학교 교가의 내용분석,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이들 교가의 창작이 민족교육과 재일코리안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2.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945년 해방이후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에 대한 기존연구는 큰 틀에서 역사적 배경이나 형성과정, 일본정부의 정책적 접근, 한신교육투쟁이나 지역 운동사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민족교육에 대하여 역사적인 출현배경과 형성과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연구로는 이동준(李東準, 1956), 오자와 유사쿠(小沢有作, 1973), 김덕룡(金德龍, 2002), 박삼석(朴三

石, 2012), 김인덕(金仁德, 2012)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민족교육을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일본법무성(1955), 박상득(朴尚得, 1980), 민족교육연구회편(1991), 임영언(2014) 등의 연구가 있고, 한편 재일조선인의 운동사적 측면에서는 박경식(朴慶植, 1989)의 연구 등이 있다.³⁾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의 민족교육을 둘러싼 연구흐름은 크게 해방 이후 동화와 민족차별, 탄압에 저항하는 대항적 민족교육론(金慶海, 1979: 金英達, 1989)과 글로벌화 이후 등장하게 된 해외 교육사례나 소수민족 교육사례를 소개하는 다문화 공생의 민족교육론(広田, 1996: 岸田, 2011)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도 했다.⁴⁾ 이러한 가운데 김태은(金兌恩, 2012)은 민족학교에서의 대항적 민족교육론과 다문화공생 민족교육론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역사성에 근거한 다문화교육론을 주장하면서 역사적 실증을 강조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⁵⁾

이러한 민족학교의 역사성에 근거한 생활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최근의 실증연구로는 송기찬(宋基燦, 2012)의 조선학교에 대한 제도적인 관점에서 다룬 연구와 김리화(金理花, 2015)의 조선학교의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조선학교(총련, 즉 북한의 지원에 의해 건립된 학교를 지칭함.)의 생활문화와 학교문화 중의 하나인 교가를 살펴봄으로서 재일조선인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전술한 기존 연구들 중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로는 김리화(金理花, 2015)의 조선학교의 교가 창작과 등장에 관한 역사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조선학교에서 교가가 등장한 배경에 대하여 크게 3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시기는 1945년 해방이후 1950년대 전반까지 창작된 교가로 가와사키(川崎) 조선초급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혼란한 시대적 상황으로 조선학교의 교가와 현재 조선학교 교가와와의 관계나 차이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제2시기는 1955년 조선 총련 결성 이후 전국 각지에서 조선학교가 설립된 시기로 학교설립의 준공을 계기로 만들어진 교가이다. 이때는 당시 총련 중앙의장이었던 한덕수씨가 교가의 작사에 참여한 시기인데 그가 얼마나 조선학교 교가창작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교가의 수나 내용은 알려

3) 앞의 논문, 外村大(2004) p.412.

4) 金英達(1989) 『GHQ文書研究ガイド-在日朝鮮人教育問題』むくげの會

5) 金兌恩(2012) 『公教育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の民族教育と多文化共生教育の相互作用: 京都・大阪・川崎の事例から』 京都大學文學研究課社會學博士論文、pp.20-23

지지 않고 있다. 제3시기는 1980년대 이후로 당시까지 교가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잊혀진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교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때는 학교 현장일선에서 조선학교 교원들이 주도하여 교가의 창작이 이루어진 시기로 초기에는 총련 의장 한덕수씨의 관여가 추측되고 있으나 점차 학생들의 요청에 따른 교원들과의 상호 소통에 의해 만들어진 시기로 짐작된다. 하지만 김리화의 연구(金理花, 2015)는 조선학교의 내부자적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외부자적 시점에서 조선학교 교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일코리안 민족학교에서 교가창작의 역사는 생활문화적인 관점에서 재일코리안 사회, 특히 조선학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역동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민족교육의 분화에 따른 조선학교 태동과정과 조선학교 최초 교가라고 할 수 있는 가와사키(川崎) 조선초급학교 교가, 조선학교와 한국학교 교가의 순으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민족학교 태동과 성장과정

3.1. 민족학교 성장과정

그러면 먼저 민족학교의 태동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은 해방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일본의 동화교육에 대한 반발로 해방과 더불어 민족학교의 창설, 1948년 민족교육의 탄압과 교육형태의 분산화, 조국분단과 동포 사회 분열, 민족학교수 절대 부족, 일본의 공립학교 대량입학추진, 동화교육과 민족차별교육, 일본사회의 정착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다음 <표 1>은 해방직후 민족학교 수를 나타낸 것이다. 해방 전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조선어강습소가 1948년 4월 시점에서는 자주적인 민족학교로 발전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 일본에서는 1948년 1월 일본 문부성 학교교육국장의 통달로 제1차민족학교 폐쇄령이 내려졌다. 같은 해 4월에는 한신교육투쟁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의 와중에 김태일학생이 일본경찰에 의해 사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⁶⁾ 이로 인해 1949년에는 조련이 해산당하고 제2차민족학교 폐쇄령이

6) 1948년 당시 문부성 통달에 의해 일본 도도부현이 조선인학교의 폐쇄를 감행하여 재일조선인과 대

내려졌다.⁷⁾ 이에 따라 오사카의 백두학원(건국소중고등학교)이 사립학교로 허가되었고 나머지 민족학교는 비합법적인 각종학교로 전환되었다.⁸⁾

<표 1> 1948년 해방 직후 민족학교 수(1948년 4월)⁹⁾

민단계 학교			총련계 학교			
학교별	학교수	학생수	학교별	학교수	교사수	학생수
소학교	52	6,297	소학교	541	1,196	56,210
중학교	2	242	중학교	9	25	2,330
훈련소	2	289	청년학교	36	140	1,796
합계	56	6,828	합계	586	1,361	60,336

이후 재일코리아 민족학교의 교육형태는 일본정부와 GHQ(미군정)의 교육정책에 의해 다음 <표 2>와 같은 4가지 유형으로 전환되었다. 1952년 4월 통계에 따르면 먼저 자주학교로서의 민족학교가 44개교, 공립학교로 이관되어 조선인학교로서 존속하게 된 공립독립학교(도립조선인학교, 1954년 9월에 폐교)가 15개교, 공립분교(나중에 자주학교로 옮겨지면서 폐교되었음)가 19개교, 일본학교 가운데 민족학급으로 존재한 학교가 총 77개교였다.

<표 2> 일본인학교 분산입학 학교 및 학생수(1957년 통계)¹⁰⁾

학교교육 형태	학교수	학생수
공립분교소학교	18	3,214
공립분교중학교	7	860
공립학교 민족학교 소학부	79	4,156
공립학교 민족학교 중학부	3	244
합계	107	8,581

립하게 되었다. 1948년 4월 24일 오사카 부와 효고 현(한신지역)을 중심으로 민족교육투쟁일 발생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체포되거나 감금되었으며 일본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7) 1945년 해방 이후 9월 10일에 결성된 재일조선인연맹(조련)은 GHQ에 의해 폭력단체로서 해산당한 후 1955년 총련(조선 총련)이 결성되었음.

8) 각종학교와 일본인 대상 이미용학교, 요리학교, 간호학교 등이었으나 외국인대상으로 민족학교가 대상으로 일본인대상의 각종학교를 전수학교로 격상시키고 각종학교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학교에 적용하여 고립화와 외국인학교법안의 성립을 도모하였음.

9) 小澤有作(1988) 『在日朝鮮人教育論—歷史編』 亞紀書房, p.200. 森田芳夫(1955)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狀』 法務省法務研修所. 在日韓國青年同盟中央本部編(1970) 『在日韓國人の歴史と現實』 洋々社. 李瑜煥(1960) 『在日韓國人の五〇年史—發生因に於ける歴史的背景と解放後に於ける動向』 東京: 新樹物産出版部.

10) 앞의 논문, 李殷直(1977) p.10참조.

민족학급의 발생 배경은 1948년 제1차민족학교 탄압, 1949년 제2차민족학교 탄압 후 공립일본인학교에 분산되어 들어간 재일조선인 학생들이 조선인으로서의 교육을 부분적으로 부가한다는 일본교육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한 재일조선인 측의 타협으로 성립한 민족교육 형태였다. 1952년경에는 77개 학교에서 1957년에는 107개 학교로 증가하였다. 일본인학교에 분산 입학(취학의무제-1952년 이후 특혜 취학) 한 재일조선인 학생수는 위의 <표 2>와 같이 107개 교에 8,581명에 달했다.

민족학급의 수업형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공립조선인학교의 학급으로 시가 현(滋賀縣)을 비롯한 전국 18개 학급으로 전담교실에서 오전부터 재일동포교사들에 의해 민족교육이 실시된 형태이다. 또 다른 형태는 과외수업방식의 민족학급(이바라키(茨城) 11학급, 교토(京都)8학급, 가나가와(神奈川), 사이다마(埼玉), 치바(千葉), 아이치(愛知), 기후(岐阜), 오사카(大阪) 30학급, 효고(兵庫), 후쿠오카(福岡), 야마가타(山形) 등)으로 일본인 학교에 부설되어 일본인학생과 혼합 학급으로 정규학생의 일본인과 같은 수업을 받은 후 방과 후 1-2시간 추가로 민족교육을 받은 과외형태의 수업이었다.

1957년 시점에서 재일코리안 민족학교는 총련계 조선초급학교(27개 도도부현) 90개교, 중급학교(27개 도도부현) 56개교, 조선고급학교(도호쿠(東北), 이바라키(茨城), 도쿄(東京), 가나가와(神奈川), 아이치(愛知),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히로시마(広島), 야마구치(山口), 규슈(九州) 등) 11개교, 조선대학교(도쿄 고다이라(東京小平)) 1개교 등 총 158개교였다. 한국계 민족학교는 도쿄한국학교(소중고등부), 오사카한국학교(1950년, 금강소중고등부), 그리고 중립계로 오사카 백두학원(1949년, 소중고등학교)으로 총 11개교였다.

다음 <표 3>은 1945년 이후 민족학교에 재학한 민단과 총련의 소중고등학교 학생수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지 민단계는 소중고등학교의 경우 거의 변함이 없으나 총련계의 소학교는 1970년대까지 증가해오다 1972년에는 급감하였다. 그러나 중학교는 1970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1972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는 1970년에 감소하다가 1972년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련학교의 학생수가 1970년 이후에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1968년부터 총련계 조선고등학교학생에 대한 일본우익들의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이 사건이 1970년대 조선학교 학생수의 증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¹¹⁾

1970년대 이후 조선학교 학생수의 동향에 대하여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2004)는 정확한 통계적 수치 파악은 어렵지만 학생수는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¹²⁾ 조선학교 학생수는 1967년에 34,58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981년에는 22,940명으로 그 후 1980년 말에는 2만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조선학교 학생수는 계속해서 1990년대에는 17,000명 수준에서 2016년 현재 102개 학교에 1만명 이하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3> 민족학교에 재적한 재일코리안 학생수의 추이(1945년~1972년)¹³⁾

연도	1945년	1958년	1967년	1968년	1970년	1972년
재일코리안 전체수	2,365,263	581,257	583,537	598,076	608,489	624,807
소학교	민단	494	576	605	710	621
	총련		8,644	15,448	15,841	18,513
	소계	42,182	9,138	16,024	16,446	19,223
중학교	민단	523	667	696	620	506
	총련		3,502	9,906	10,050	10,644
	소계	1,180	4,025	10,573	10,746	11,264
고등 학교	민단	773	1,115	1,016	866	835
	총련		2,397	7,608	7,564	5,572
	소계		3,170	8,723	8,580	6,438
대학 (총련)			964	933	960	950
합계	43,362	16,333	36,284	36,705	37,885	37,671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민족학교는 일본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른 민족학급의 감소, 민족학급 강사부족초래,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제약과 과외수업방식에 따른 이중수업부담 등 일본사회 내에서 민족교육의 동화와 차별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970년대 이후 민족학교에서 학생수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후 민족학교의 존재양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¹⁴⁾

11) 일본우익들의 조선고등학교학생(조고생)들에 대한 폭행사건은 1962년 호세고등학교 문화제에서 신영철군이 살해당하면서 이를 계기로 조고생에 대한 우익들의 폭행사건이 촉발되었고 조고생 폭행사건은 1969년, 1970년에 최고조에 달했음.

12) 앞의 논문, 外村大(2004) p.463.

13) 李殷直(1977) 『在日韓國·朝鮮人の民族教育の歴史と實態』 連続セミナー第6回總括資料編1977年4月17日發行, pp.1-11

14)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감소를 보인 조선학교는 현재 28개 도도부현(휴교 포함)에 68개교 학생 수 약 6,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3.2. 교가의 등장배경과 역할

민족학교 교가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일부 소중고급학교에서만 존재했고 대부분의 조선학교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교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학교에서는 총련의 지원정책에 따라 교가 대신 “김일성의 노래나 수령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와 같은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노래가 학교 행사나 식전행사에서 주로 불리어졌다.¹⁵⁾ 왜냐하면 1955년 총련 결성 이후 조선학교 지원정책에 따라 일본 각지에서 조선학교의 규모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학교의 확대 요인은 북한과 총련의 적극적인 민족교육의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그것보다는 1959년부터 시작된 북송사업과 관련된 학생들의 수요증가에 따라 조선학교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¹⁶⁾ 그리고 실제로 당시 조선학교에서는 북송을 준비하기 위한 학생들로 학생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국 각지에서 교사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 북송사업기간인 1958년부터 1968년 사이에 약 11년 간 매월 평균 1.3개교의 교사 신증축공사가 이루어진 것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와중에 조선학교의 역할은 귀국을 위한 임시교육 장소로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교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조선학교에서 교가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교가 등장의 시대적 배경요인으로 재일코리안의 정주화 및 학생수 감소와 더불어 총련의 민족교육정책과 현장에 있던 일선 교원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요청 등을 들 수 있다.¹⁸⁾ 이러한 조선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교가창작의 요청은 1980년대 당시 북한이 전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왔던 총련의 조선학교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1980년대 당시 조선학교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북한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기정사실화 된 인지와 정주화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둘째, 이에 따라 글로벌화와 학생수의 감

15) 金梨花(2015) 「故郷としての朝鮮學校—朝鮮學校の音楽教育に關する一考察」 『在日朝鮮人史研究』 No.45、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p.153

16) 북송사업은 조일양국의 적십자가 1959년 12월부터 84년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이때 북한으로 귀환한 재일조선인이 9만 3천명에 달했음.

17) 『朝鮮總連』 第95号、1960年2月8日。

18) 예를 들면 효고 현 니시와키조선학교(兵庫縣西脇朝鮮學校、현재 폐교)에서와 같이 재일본조선교육일군 문화예술작품 현장 모집에서 입선된 노래가 교가가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함.

소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을 일본어 습득 등 정주화의 경향에 있는 학생들의 미래 일본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학생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시기 조선학교는 이전과는 다른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민족교육 내용의 대전환이라는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⁹⁾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여 조선학교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하는 시대적 수요가 대대적인 교가창작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학교에서 교가의 역할은 1948년 한신교육투쟁의 탄압과 투쟁정신, 그리고 김일성주체사상의 고취 등 1980년대 이전에는 조선학교의 목적과 필요성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일본정주화 경향과 민족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조선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와의 일체감과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등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²⁰⁾

4. 한국학교와 조선학교 학교문화로서 교가의 내용분석

4.1. 가와사키(川崎) 사쿠라모토(桜本) 소학교의 교가

1945년 일제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조선어강습소에서 자주학교로 발전해가던 시기인 1946년 11월 사쿠라모토(桜本) 초급학교는 당초 일본공립소학교분교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자주학교 가와사키(川崎)조선소학교로서 창립되었으며 학생수 453명, 교직원 9명으로 출발하였다.²¹⁾ 그리고 1948년 4월 24일 ‘한신교육투쟁’으로 인해 조선학교의 탄압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일부는 일본의 공립학교분교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와사키 조선소학교의 교가가 탄생하였다.

19) 金徳龍(2004) 『朝鮮學校の戰後史—1945—72(增補改訂版)』 社會評論社, p.178.

20) 1980년대 교가 이외에도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동포사회에서 노래가 많이 등장하였는데, 가령 ‘출발의 아침에’, ‘길동무’, ‘락엽’ 등과 같이 재일코리아인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각종 모임이나 행사 때 부르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음.

21) 1945년 해방 이후 조선학교는 각지에 탄생한 국어(조선어)강습소로부터 시작되었다. 국어강습소는 사설학원이나 자주학교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학교교육 시스템으로 체계화되어 갔음.

가와사키(川崎) 조선소학교의 교가는 가와사키시(川崎市)교육위원회가 1958년에 발행한 ‘학교연혁지’에 ‘사쿠라모토(桜本)소학교분교’ 교가로서 소개되어 있으며 악보 없이 다음과 같은 일본어 가사가 실려 있다.

“輝く われらの 文化を学ぶ。川崎 われらの朝鮮の学校。みんなで 立派な少年になるよう。共に行こう 学校に行こう。まなぼう 真理を守ろう 規律を。そして からだをきたえ。祖国に役だとう。”²²⁾

이 교가의 작사자는 정백운, 작곡자는 당시 조선 총련 요코하마(横浜)소학교 전필원교사로 알려지고 있다. 1949년 제2차조선학교 폐쇄령에도 불구하고 일본 공립분교의 형태로 조선학교가 존재했다는 것을 이 교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신교육투쟁’ 이후에도 일본공립분교에서 조선어 등 민족학교 교과과정은 과외취급으로 다양한 제약이 많았다. 이로 인해 자주학교에서의 조선학교 교사생활은 매우 어려웠다. 일본정부와 GHQ(미군정)의 탄압에 의해 생활이 어려워진 조선학교 교사들과 동포들은 필사적으로 조선학교를 지켜내기 위해 힘썼다. 교가내용은 “빛나는 문화를 배우는 조선학교. 훌륭한 소년이 되기 위해 학교에 가자. 배우자 진리를 지키자 규율을. 몸을 단련시켜 조국에 보탬이 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교가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훌륭한 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린이들은 조선학교에 가야하며 진리, 규율, 체력을 단련하여 조국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 되자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와사키(川崎)소학교의 교가는 일본에서 조선학교의 저항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으며 후세들에게 이를 상기시켜주는 노래이자 소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4.2. 사이다마(埼玉) 조선학교 교가

1945년 해방 전후로 오사카지역과 마츠가지로 도쿄도 주변 오미야(大宮), 가와구치(川口), 가와고에(川越) 등 각지에 조선어강습소가 설립되었다. 이것이 민족교육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후 사이다마 조선초중급학교는 1948년 사이다마 조선소학교의 설립으로 시작되어 민족교육이 급속도로 확대되자 1961년에 이르러 조선초급학교 개교, 1965년 중급부 병설로 사이다마 조선초중급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67년 신교사의 준공과 1970년 제2교사 및 체육관 건립 등을 걸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2) 조선신보, 2016년 5월 30일자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조선학교 교가의 가사와 작곡은 당시 일선 학교 현장에 있었던 교사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음악전문가로서 교가의 창작에 적극 대응할 수 없는 교원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조선학교 교사들과 협력하거나 북한의 음악대학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³⁾ 이러한 이유로 당시 만들어진 교가의 가사들 대부분이 조선학교 교사들이 먼저 작사를 한 후 이를 북한 음악가의 협조를 얻는 방식을 취했다. 때문에 처음에는 북한의 지도자를 뜻하는 ‘수령’이나 ‘지도자’ 등과 같은 가사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이들 단어들은 조선학교 교사들이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참작하여 자발적으로 ‘태양’이나 ‘별’ 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그림 1> 사이다마 조선초중급학교 교가²⁴⁾

	<p>제1절 이국산천 오오미야에 붉게 핀 진달래. 교문 안에 들어서니 애국향기 풍겨주네. 아 그 향기를 이 가슴에 받아 안고. 내 나라 말과 글을 여기서 배워가네.</p> <p>제2절 동포들의 애국지성에 꽃피는 배움터. 희망의 꽃 피워주는 종소리도 드높아라. 아 찬란한 해와 별빛 비쳐주는 곳. 앞날의 주인으로 몸과 마음 다져가네.</p> <p>제3절 글 한 줄을 익혀나가도 민족의 그 정신. 공을 차도 춤을 추어도 그 슬기를 떨쳐가네. 아 충성의 붉은 마음 꽃피워가며. 조국의 아들딸로 씩씩하게 자라나네.</p> <p>후렴 아 사이다마 우리 조선초·중급학교. 떨치자 민족의 빛 지켜가자 우리 학교.</p>
--	---

위의 <그림 1>은 사이다마 조선초중급학교의 교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 학교 교가의 가사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수령이나 지도자의 단어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가사의 내용이 다른 용어들로 대체되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가사의 제2절에 보면 이들 용

23) 앞의 논문, 金理花(2015) pp.140-141 참조.

24)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교가: <http://urihakkyo46.web.fc2.com/kouka.html> (검색일2016.10.12.).

어 대신에 ‘해와 별’ 등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조선학교 교가의 가사는 이러한 용어들을 활용하여 조선학교에서의 민족의식 고취와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용어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에는 ‘이국산천’, ‘진달래’, ‘애국향기’, ‘나라’, ‘말과 글’, 제2절에는 ‘동포’, ‘애국지성’, 제3절에는 ‘글’, ‘민족’, ‘충성’, ‘조국’, 후렴에는 ‘우리’, ‘민족의 넋’ 등이다. 전체적으로 교가의 가사내용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조국에 대한 향수, 민족, 우리로 수렴되고 있으며 동포들이 말과 글을 통해 민족을 지켜내고 조선학교를 지켜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이국산천’과 ‘진달래’는 조선학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북한의 지원에 의해 조선학교에서 우리민족의 말과 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조선학교의 주인과 역사성을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포들의 ‘애국지성’이 의미하는 것은 일본거주 동포들이 민족교육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북한이 지원하는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1980년대에는 일본사회가 글로벌시대로 전환되는 과정과도 맞물려 다문화공생 차원에서 조선학교에서 개최되었던 각종 학교행사에 대해 지역사회와 동포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였다. 당시 일본의 다문화공생시대 재일외국인 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조선학교는 외국인 문화교류의 중심에 서있었으며 동시에 재일코리아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즉 조선학교 교가는 재일코리아의 일본정주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도모하던 시기에 등장하여 재일동포-학생-지역사회 간의 교류와 연대감을 강화시켜 주었다. 또한 조선학교 졸업생들에게는 같은 학교출신이라는 일체감을 심어 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교가는 조선학교를 통한 동포사회의 공동체 유지와 재구축, 동포사회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으며 동포들이 주체가 되어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운명공동체적 장소로 변모해 나갈 수 있었다.

4.3. 도쿄(東京) 한국학교 교가

동경한국학교는 1953년 11월 재일동포 민단 대회에서 민단이 동경한국학교 설립을 결의한 후 1954년 1월에 학교설립기성회를 조직하였다. 기성회 회장에는 김용식 당시 주일공사, 부회장은 김재화 민단단장, 임원에는 중앙본부 간부 등이 대거 영입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학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그림 2> 동경한국 초중고등학교 교가²⁵⁾

	<p>(1절) 현해탄 푸른 물결 건너서 올라온다 희망의 종소리. 무궁화 아름다운 강산이 내일의 새 일꾼을 부른다.</p> <p>(2절) 찬 서리 매운 바람 이겨서 싹트는 이른 봄의 새 보리 싹씩한 우리 기상 우리 뜻 같고 닭아 조국에 바치리.</p> <p>(후렴) 배우자 겨레의 역사 누리에 빛내자 그 문화 한국 학원, 우리 보금자리 손 마주 잡고 나가자.</p>
--	---

1954년 개교 당시에는 초등부 17명, 중등부 9명 등 총 26명, 교사 10명으로 시작되어 총련계 조선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동경한국학교는 교직원 55명, 재학생으로서 초등부 716명, 중등부 631명 등 거대 민족학교로 성장하여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제2동경한국학교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동경도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²⁶⁾

한국학교의 교가는 재일동포 시인 김소운이 작사하고 작곡가 우종갑이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본에서의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한국인의 얼을 심고 뿌리를 내리는 민족교육을 이념으로 하는 재일동포의 마음의 안식처, 민족의 도장, 희망, 등대 역할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사 내용을 보면 제1절에 ‘현해탄’, ‘희망’, ‘무궁화’, ‘새일꾼’, 제2절에 ‘우리’, ‘기상’, ‘조국’, 후렴에 ‘겨레’, ‘한국’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 교가 내용은 ‘무궁화 아름다운 강산’에서와 같이 한국의 국화인

25) 동경한국학교 교가:
http://www.tokos.ed.jp/icons/app/cms/?html=/home/s1_2.html&shell=/index.shell:399(검색일2016.10.12).

26) 동경한국학교 현황:
http://www.tokos.ed.jp/icons/app/cms/?html=/home/s1_3.html&shell=/index.shell:398(검색일2016.10.12).

무궁화를 은유하여 한국인의 줄기차고 억센 기상을 상징하고 ‘이른 봄의 새 보리’는 자강불식의 기상으로 한민족을 표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교가는 이국땅인 일본 동경에서 한국인의 기상을 떨치고 한국역사와 문화의 배움에 힘써 정진하여 조국을 빛내는 일꾼이 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민족학교에서 교가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민족학교에서 한국학교와 조선학교의 성장과 발전의 차이, 민족학교 교가의 내용 분석, 그리고 이들 교가의 창작이 민족교육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하는데 있다. 민족교육에 대한 기존연구는 큰 틀에서 역사적 배경이나 형성과정, 일본정부의 재외국인 교육의 정책적 접근, 그리고 한신교육투쟁과 같은 지역 운동사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일코리안의 문화유산인 조선학교에 대한 생활문화사적 측면에서 학교문화 중의 하나인 교가내용을 분석하고 교가창작이 재일코리안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 민족학교의 성장과정은 해방 전 식민지기 일본의 동화교육에 대한 반발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방과 더불어 재일코리안 사회는 민족학교의 설립, 1948년 일본정부와 GHQ(미군정)에 의한 민족교육의 탄압과 교육제도의 분산화, 조국분단과 동포사회 분열, 민족학교의 절대부족, 일본 공립학교 대량입학사태, 동화교육과 민족차별교육, 일본사회의 정착화 등이 1970년대 이후 민족학교의 존재양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선학교에서 교가의 등장은 1980년대를 기준으로 1980년대 이전에는 조선학교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1948년 한신교육투쟁의 탄압에 대한 투쟁정신고취, 그리고 김일성주체사상의 고취가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글로벌시대에는 일본정주화의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학생수의 감소, 민족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조선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의 일체감과 민족의식 고취 등 시대적 수요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방 이후 출현한 가와사키 사쿠라모토(川崎桜本) 소학교의 교가는 민

족학교 최초의 교가라 할 수 있으며 1948년 ‘한신교육투쟁’을 겪으면서 일본에서 조선학교의 저항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또한 이 교가는 후세들에게 이를 상기시켜주는 노래이자 기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1980년대 이후 조선학교 교가는 일본사회가 글로벌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와도 맞물려 조선학교에서 개최되었던 각종 학교행사에 대해 지역사회와 동포사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조선학교가 재일코리아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시기에 교사와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전국적으로 교가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한국학교의 교가는 시인 김소운과 작곡가 우중갑이 이국땅인 일본 동경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한국인의 기상을 떨치고 역사와 문화의 배움에 힘써 정진하여 조국을 빛내는 일꾼이 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가는 민족학교의 역사성과 재일동포의 위치, 그리고 민족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민족학교에서 한국학교와 조선학교의 성장의 차이는 조선학교의 경우 북한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전국적인 확대되었다. 특히 조선학교는 1955년 총련 결성 이후 1959년부터 시작된 북송사업으로 인하여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조선학교가 북송을 준비하기 위한 조선어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최고 정점을 보이던 조선학교는 재일코리아의 정주화와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1980년대 이후 감소하게 되었다.

민족학교 교가의 내용을 보면, 한국학교의 교가는 한국인의 기상, 재일동포의 역사성과 위치, 민족정체성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학교의 교가는 처음에는 재일코리아의 동화와 민족차별이라는 측면에서 투쟁과 저항의 정신을 담고 있었지만 1980년대 글로벌화 이후 세대교체와 더불어 재일2세-3세의 정주화, 학생수의 감소라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모국고향-학교-동포의 일체감 형성과 민족의식 고취,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한국학교와는 달리 조선학교가 일본에서 얼마나 치열한 차별의 대상이었으며 이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민감하게 잘 대응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방 전후 민족학교의 이행기 과정에서 출현하게 된 조선어강습소, 자주학교, 훈련소, 청년학교, 공립학교분교, 민족학급, 민족학교, 조선학교의 형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덕(2012) 「해방 후 재일조선인연맹의 민족교육과 정체성: 『조선역사교재 초안』 과 『어린이 국사』 를 통해」 『역사교육』 제121집, 역사교육연구회, pp.165-189.
- 임영언외(2014)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고찰」 『日本文化學報』 第62輯, 한국일본문화학회, pp.287-308.
- 小澤有作(1988) 『在日朝鮮人教育論—歷史編』 亞紀書房, p.200.
- 金德龍(2004) 『朝鮮學校の戦後史-1945~1972(増補改訂版)-』 社會評論社, p.178.
- 金理花(2015) 「故郷としての朝鮮學校—朝鮮學校の音樂教育に關する一考察」 『在日朝鮮人史研究』 No.45,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p.153.
- 金兌恩(2012) 『公教育における在日韓國·朝鮮人の民族教育と多文化共生教育の相互作用: 京都·大阪·川崎の事例から』 京都大學文學研究課社會學博士論文, pp.20-23.
- 金英達(1989) 『GHQ文書研究ガイド-在日朝鮮人教育問題』 むくげの會.
- 外村大(2004)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考察—形成·構造·変容』 綠蔭書房, p.463.
- 宋基燦(2012)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學校』 岩波書店.
- 在日韓國青年同盟中央本部編(1970) 『在日韓國人の歴史と現實』 洋々社.
- 朴慶植(1989)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 朴三石(2012) 『日本の中の朝鮮學校-21世紀にはばたく』 朝鮮青年社.
- 朴尙得(1980) 『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 岩波書店.
- 法務省(1955)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狀』 法務研修所.
- 民族教育研究會編(1991) 『資料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の權利について-朝·日關係改善と國際化の流れの中で』 學友書房.
- 李瑜煥(1960) 『在日韓國人の五〇年史—發生因に於ける歴史的背景と解放後に於ける動向』 東京: 新樹物産出版部.
- 李股直(1977) 『在日韓國·朝鮮人の民族教育の歴史と實態』 連續セミナー第6回總括資料編 1977年4月17日發行, pp.1-11.
- 李東準(1956) 『日本にいる朝鮮の子ども-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 春秋社.
- 森田芳夫(1955)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狀』 法務省法務研修所.
『朝鮮總連』 第95号(1960.02.08.)
- 조선신보(2016.05.30.)
-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교가:
<http://urihakkyo46.web.fc2.com/kouka.html>(검색일2016.10.12.).
- 동경한국학교 교가:
http://www.tokos.ed.jp/icons/app/cms/?html=/home/s1_2.html&shell=/index.shell:399(검색일2016.10.12.).
- 동경한국학교 현황:
http://www.tokos.ed.jp/icons/app/cms/?html=/home/s1_3.html&shell=/index.shell:398(검색일2016.10.12.).

논문 투고 일자 : 2017. 02. 28.
논문 심사 일자 : 2017. 05. 10.
게재 확정 일자 : 2017. 05. 10.

＜要旨＞

在日コリアン民族学校の成長要因と学校文化としての校歌に関する考察

林永彦・金泰永

本研究の目的は、在日コリアン民族学校における校歌の誕生の歴史的な過程に注目し、成長要因、校歌の内容分析、学校文化の形成と民族教育に与えた影響などを考察することである。研究の方法は、2016年7月21日から31日まで日本の現地調査を通して収集された資料調査とインタビュー調査の内容を活用した。本研究の分析結果は次の通りである。第一に、1945年の解放前後における民族学校の成長過程は、日本植民地時代の同化教育に対抗する形で民族学校の設立が本格化された。第二に、朝鮮学校における校歌の登場は1980年代を前後し、民族学校の弾圧に対する闘争精神と主体思想、民族学校の危機による民族意識の高揚などに大きく影響を受けた。第三に、民族学校校歌の内容は韓国学校の場合、韓国文化とアイデンティティに、朝鮮学校の場合は、民族意識高揚と連帯感の形成など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結論的に、日本における民族学校の校歌は日本における特殊的な立場によって政治的な影響と時代的な流れに敏感に反応して作られたものであると思われる。

A Study on the Growth Cause and the School Culture of School Song in Japanese-Korean Ethnic School

Yim, Young-Eon · Kim, Tae-You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sider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school song's birth, the cause of its growth, a content analysis of the school song, its influence that reaches the school culture and ethnic education in Japanese-Korean Ethnic school. The method of study used collected data for Japan field survey and interview investigation for the analysis of the paper from July 21st until 31th 2016.

Three main study results given below. First, the growth process of the postwar ethnic school, the foundation of the ethnic school was regularized by opposition against the assimilation education of the colonization period Japan. Second, the school song took charge of a role in the consciousness of opposition about the ethnic school oppression and ideology of independence and national awareness according to the ethnic school crisis in the Joseon school since 1980's. Third, the school song content contributed to the Korean culture and identity of the Korean school and the national awareness inspiration and feeling of solidarity formation in Joseon school.

In conclusion, the ethnic school song was made through the Japanese political situation and ethnic awareness of crisis of Japanese-Korean.